

지주형 간판 철거 골머리

〈공공 광고판〉

철거비용만 수백만~수천만원에 수익사업도 차질

관련법안 개정 정비 압박 광주 5개區 정부 눈치만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했던 지주형 간판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백만~천만원대의 철거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간판을 활용해 올려왔던 적지않은 수익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및 광고목적 지주이용(야탑) 광고물 등 일제조사 계획’ 공문을 발송, 지주형 간판에 대한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고속도로 변이나 시가지에 설치된 대형 지주형 간판(옥상·아치·가로형)이 여기저기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과 시민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0월 ‘옥외광고물 등에 의한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판에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없애는 한편,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룬 제29조를 따로 신설, 홍보용 간판은 청사나 건물의 부지에 단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해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서구는 지난달 14일, 구정 홍보용으로 농성동 농성광장에 설치·운영중이던 가로 15m, 세로 8m의 중형 지주형 간판을 철거했다. 이와 함께 ▲서구 마북동 영산강변 608번지 ▲북구 누문동 275번지 ▲북구 각화동 동광주IC 진출로 주변 480-33번지 ▲북구 운암동 서광주IC 진입로 주변 179-6번지 등 모두 4곳의 지주형 간판도 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농성광장에 설치됐던

지주형 간판 철거비용으로 6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훨씬 큰 고속도로변 간판 철거비용은 수 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가 이들 지주형 간판을 운영하면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사용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외부업체에 임대, 적지않은 수입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통한 수익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관련법을 개정하고, 철거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 반발이 심하다”면서도 “개정된 법의 기본취지에 명분이 있는데다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일부 간판을 철거해가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모두 18개 시·군이 고속도로 주변 지주형 간판을 포함해 67곳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농성광장에 설치돼있던 지주형 간판(위)이 지난달 14일 철거됐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 대학생들 많이 뽑아 주세요

강운태시장 국내 500여 기업에 서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과 400여개 출항·연고기업에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문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3일 발송했다.

강 시장은 서한문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1만6000명의 광주 인재들이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는 아직까지 제조업기반이 취약해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에서 대학을 나온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업과 함께 내일을 설계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된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지나해 광주 수출액이 159억 달러를 넘어서고 고용률도 특·광역시중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서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삼성그룹이 도입하려던 ‘대학총장 추천제’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해 전면 백지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시티뉴스

동구, 광주 5개구서 ‘사회의 質’ 가장 높아

광주 동구가 광주지역 5개 구(區) 가운데 ‘사회의 질(SQ·social quality)’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역사회 간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는 전국 230개 지자체 중 7위를 차지했

다. 광주·전남에선 동구가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SQ지수는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양호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지자체의 SQ지수가 높다는 것은 살기 좋고, 성숙한 사회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북구, 27개 주민센터 SNS 소통창구 개설

광주시 북구가 최근 SNS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만들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행정에 나서 화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27곳 각 동(洞) 주민센터 명의로 계정을 받아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이른바 ‘카·페·트’를 개설·운영 중이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 직원 1명을 ‘주민 소통관’으로 임명한 뒤 마을행사·주민자치 활동·민원 등을 게시해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개설·운영 중인 구(區) 명의의 SNS와 연계, 주민들이 각 동 주민센터 SNS를 통해서도 구 민원을 제기·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남구, AI 확산 방지 고싸움 놀이축제 연기

광주시 남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전국으로 확산으로 인해 정월대보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32회 고싸움 놀이축제’를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와 고싸움놀이보존회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 등을 자

제해 달라는 정부와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최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연기를 결정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최로 의견을 모았다. 제32회 고싸움 놀이축제는 오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홍희기자 kimhy@



국립광주과학관 로봇특별전

로봇을 테마로 예술적 감성과 첨단 과학을 접목한 국립광주과학관 로봇특별전(로봇스토리·빛과 로봇의 향연)이 지난달 29일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은 나무로봇과 최첨단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전시회로,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나무로봇이 테이블의 터치패널 위에 고민을 적은 관람객들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숙박업소 시설 개선 지원…내달 3일까지 ‘크린호텔’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각종 국제행사 참가자를 비롯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크린호텔’ 사업자를 공모한다. 기존 모텔을

대상으로 주차장 가림막 철거, 개방형 집객대 설치, 조식제공 등 개방형 비즈니스호텔로 전환이 가능한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 비용으로 1곳 당 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전자금 1억원 이내,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 10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각종 행사 때 참가자와 방문객을 우선 배정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만’가지 알찬정보와 ‘물’만난 살림꾼들의 ‘장’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